

1992

2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시편 121편~149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시편 서론

시편의 명칭은 영어로는 Psalm인데, 칠십인역의 명칭 ‘프살모이’(Psalmoi)를 음역한 것이며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은 각각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의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전편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신앙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고백의 시, 찬양의 시, 그리고 왕의 시 등이 그것이다. 저자별로 본다면, 다윗의 시가 73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리고 에단과 모세의 시가 각각 한편씩이다. 나머지 50편은 저자미상이다. 이같이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므로 시편을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도 부른다. 시편의 내용에서 볼 때 유일신관이 왕권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단적인 악인과 극단적인 의인의 대결의 장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또 시편은 사회적인 죄 뿐 아니라 영적이며 개인적인 죄를 깊이 다룬다. 악인의 번영이 있으나 영구치 못하므로 의인이 낙심할바 아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메시아를 대망케 하며 주의 나라의 궁극성을 바라보게 해준다.

2월의 기도제목

1.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충만
4. 전교회의 뜨거운 기도운동
5. 전교구의 부흥과 배가성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7. 3월에 개최될 목회자 세미나

1 (토)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송432 성경, 시121 : 1-8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121 : 3)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 시대와 더불어 죽음의 잠을 자기 쉽습니다. 이 쾌락을 즐기는 세대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시편기자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도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 결합된 인격을 갖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위험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 * * 재난이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빨리 주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 섰을 때 재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현통하리로다」(122:6)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시편기자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1절). 이 기쁨은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가 있습니다(4절). 시편기자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3~4)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진의 모습입니까! 감사하는 자의 심령에 아름다운 모습이 영광의 탄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속적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런 자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곧 겸손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영혼의 형통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세상의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5 (수)세가지 약속

찬송212 성경, 시125:1-5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125:2)

이 시편은 원수들로 부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신앙이 견고해 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산과 같이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안전은 마치 예루살렘이 산들로 둘러있는 것같이(2절)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은 잠깐동안 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약속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기자가 1절에 증거하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 * 성도들은 종종 악인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지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 성도는 시온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의 때를 통하여 더욱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시련의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련의 순간을 멈추실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6 : 5)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지속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 되리라고 믿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시편기자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약속이 땅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땅이 척박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결코 해산의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스런 경작없이는 영적 추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쏟는 모든 힘입니다. 눈물로 세우지 않으면 결코 그 기쁨의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뿌려야 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통하리로다」
(128:2)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의 직업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그리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일이 나 자신과 가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자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이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1-4절).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하십니다(5-6절).

- * *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7절)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곳이 되기 바랍니다.

9 (주일)은혜의 환난

찬송383 성경, 시129:1-8

「저희가 나를 소시부터 여러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129:1)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말씀된 대로 태어나면서 부터 시련의 요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종의 위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된 민족이 겪는 이 모습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환난을 결코 잊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번 시련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의 개가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 말씀 속에서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이 은혜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백성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 * * 스필런 목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은 사실상 어려운 환경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성도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잠깐의 환난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130:2)

이 시편은 7개의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구원을 간청하고 있으며(1, 2절), 그의 용서를 구하며(3~6),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7, 8절).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의 생활속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환난을 당할때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음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 처할찌라도 그곳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직장, 혹은 사업체, 혹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큰 고난의 파고가 밀려오면 올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역경이 깊을수록 우리는 순풍에 돛단듯이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자의 인격을 만들고 이것이 곧 기도자의 인격을 성숙하게 변화시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그곳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높은 곳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 * * 우리는 위급한 일이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위급한 순간에 탄원했습니다. 매우 짧은 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14:30) 응답 받기에 충분한 간구였습니다. 기도에 요구되는 것은 길이가 아닙니다. 참된 간구입니다.

11 (화)경건의 훈련

찬송490 성경. 시131 : 1-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 : 3)

시인은 자신의 심령상태를 통찰하여 보며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은 한 순간에 갑자기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령속에 일어나는 모든 야망과 뜨거운 격동을 진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얻어진 생활입니다. 시인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고백속에서 시인의 경건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낮추는 경건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본질상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되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경건으로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속에 “고요함과 평온의 삶”이 임합니다.

- * * ‘경건한 자’를 원어로 가시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총애를 받는 자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외모로 엄숙한 체 하거나 거룩한 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속에 이 경건이 항상 있어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132: 18)

시인은 법궤를 찾음으로써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궤를 찾은 그 기쁨을 시인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7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이것이 곧 그들의 기쁨의 최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어 달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께 경배로 감사하고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경배가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후손의 축복(11-12절)과 선택받은 축복(13-14절)과 풍족한 양식의 축복 그리고 빛난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축복(15-18절)을 약속하셨습니다.

* * 독일의 천문학자로서 천문학계의 최대 권위자인 케플러는 다음과 같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조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창조를 통하여 나에게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표현은 곧 찬송임을 말합니다. “너희 중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약5:13)

13 (목)형제의 연합

찬송278 성경, 시133:1-3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133:3)

본문은 아름다우면서도 선하고, 선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의 연합, 함께 동거함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들과는 약간 떨어져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모여 사는 동안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을 보더라도 평안할 때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욱 아름다운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적인 형제들로서 교제하며 연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같은 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연합된 형제들에게 주십니다.

- * * 연합된 모습은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새벽기도에 열심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연합된 모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새벽기도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의 일기중 1784년 4월 5일 일기에는 "조지아에 첫걸음을 들여 놓기가 무섭게 나는 새벽 5시에 설교를 시작했다...만일 오늘 새벽기도회에 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열심이 없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배신의 무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모습이 새벽기도 생활에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온전합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134:1)

이 시편은 야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특별한 찬양입니다. 밤에 수고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처럼 밤에 수고 합니까? 기도하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전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더욱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생활동안 전심으로 주를 찾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욱 앞서야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은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성도의 열정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같은 열정적인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 * * 금요특별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참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15 (토)택함받은 자의 찬양

찬송125 성경. 시135 : 1-14

「할렐루야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라」(135 : 1)

시편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려야 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첫번째가 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4-5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써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영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사치도 않고, 직분을 회피하는 자는 찬양을 게을리 할 것입니다. 시편기자가 “여호와와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1, 2절)고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 *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속에서 찬양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136:1)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무려 26번이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함은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역사의 영원성을 말씀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싫증이 나지않고, 더욱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처럼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나”라고 찬양드릴 때 그 집에 구름이 가득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대하5:13). 또한 여호수아시대에도 이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인의 찬양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심령속에서 부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 *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기분 상하지 않는 말중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뻐 집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속에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계속적인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속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살전5:16-18)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저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137:1)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한 그들의 역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드렸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그들의 행동을 회개하는 징표입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지 못한 순간을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로 경배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의 기쁨을 위하여 노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소원의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 * 홀랜드의 종교개혁자 빈터는 참형을 당하여 순교의 순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라는 찬송을 부른후 “모든 순교자들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5:12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숨지는 그 시간까지함이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138:3)

경험처럼 힘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다윗은 어느 날 평상시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가득찼고, 마음이 지쳐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당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속에 담겨진 뜻을 다 살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기도드린 바로 ‘그날에’ 응답받았습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 * * 영국의 농촌 지도자인 플체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생활의 비결에 대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기 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계속적인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기도는 꼭 응답을 받습니다(창32:24)

19 (수)전능하신 하나님

찬송492/성경, 시139 : 1--6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139 : 2)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고 숨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기자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뿐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므로 잘못된 길에서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있거나 교만 속에 빠져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 뜻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기 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못 판단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공평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선앞에서 모든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 * * 예수님의 제자중 가롯유다는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보는 곳에서만 잘하면 모를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편에서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숨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140:7)

시편기자는 지나간 위험과 구원을 돌이켜 보면서, 주께서 그의 머리를 가리우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멸망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만 믿었던 골리앗이나 사울은 병기도 방패조차도 없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좌절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는 낫으로 만든 갑옷이나 투구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병기들이 사방에서 부딪쳐 올때, 전능자의 능력보다 더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은 장엄한 찬양이며, 은혜로운 위로의 기반이며, 유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 * * 영국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전도 탐험을 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도 전과 같이 140명이 동행했다. 그 누구에게도 방패를 주지 않았다. 방패없이 전쟁할 수 없으므로 토인들에게 의심받는 일이 없었다. 우리의 방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자는 없다.” 진실로 성도들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141:3)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도는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사울에 의해 쫓길 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내 음성 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심령의 생명력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청취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예정 높은 예물입니다. “나의 손을 드는” 기도는 재물 대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육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 영혼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각각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은 없습니다.

- ★ ★ 황금제단에는 매일 타오르는 분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까지 상달되었습니다. 나의 보잘것 없는 기도가 주 앞에 타오르는 분향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소나 황소 보다 더 귀한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랑과 열정으로 타오르는 기도를 말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142:9)

다윗을 괴롭힌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떠나고 믿었던 재물과 권세가 떠났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라는 다윗의 탄식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했던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잘못도 없고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대접받고 억울하게 밟힐 때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친구가 날 버리고 세상의 물질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와 이름만이 내가 들어갈 강한 성입니다.

- * * 나를 해치려는 대적이 있습니까? 나의 강한 성 여호와께 피하십시요. 하나님은 원수의 손을 결박하시든지 그의 마음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힘을 파괴하시든지 혹 그의 계획을 허사로 돌릴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심히 비천하고 원수는 강하다 할지라도!

23 (주일)알게 하소서

찬송434 성경, 시143: 7-12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143: 10)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두운 곳에서 옳은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로 바른 길을 가며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의미없이 막연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 재미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가야할 길은 올바른 길,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법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손으로 내 의무를 어떻게 민첩하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모든 신실한 종들의 소원이며 노력이어야 합니다.

- * *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2절).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해도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끝까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글이도형양자(12)

한글이도형양자(12)

25 (화)찬양하리이다

찬송543 성경, 시145:1-9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시리다」(145:1)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로 변영한 사람은 찬양이 풍성합니다. 찬양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의 절정이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늘을 진정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찬양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늘의 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아무리 슬픈 날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보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위로 중에 위로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 * *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의 끝날까지 해야 합니다. 내가 영영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승리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전진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146:10)

본 시편은 개인적 찬양시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로서 그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제시하며 평생동안 통치하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며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는 객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자는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더라도 공의로우거나 선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는 유한적인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약한 인생이나 지식과 권세, 그리고 재물을 믿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 *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의 통치자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권력에 의지하여 살지는 않는지요? 참으로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에게만 통치받기를 원하는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 이십니다.

본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32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34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36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38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40년 1월 1일부터 204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42년 1월 1일부터 204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44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46년 1월 1일부터 204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48년 1월 1일부터 204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50년 1월 1일부터 205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2052년 1월 1일부터 205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 동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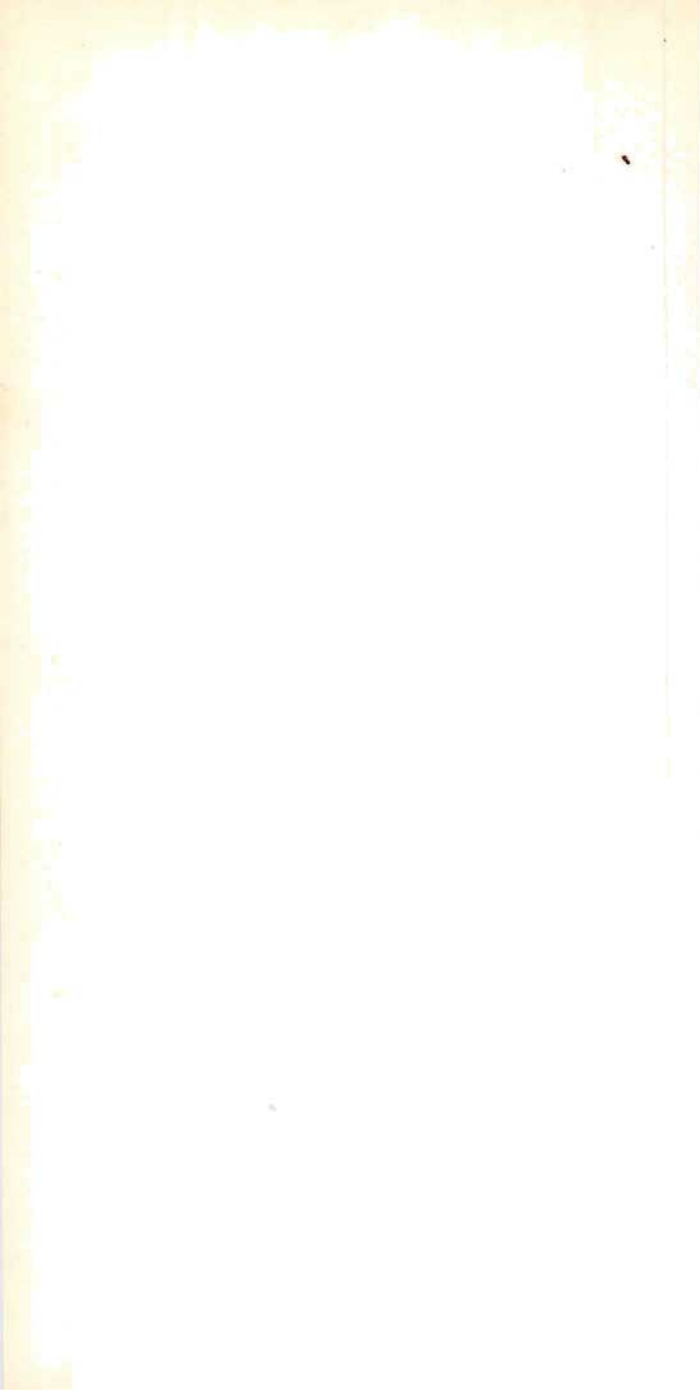
29 (토)성도와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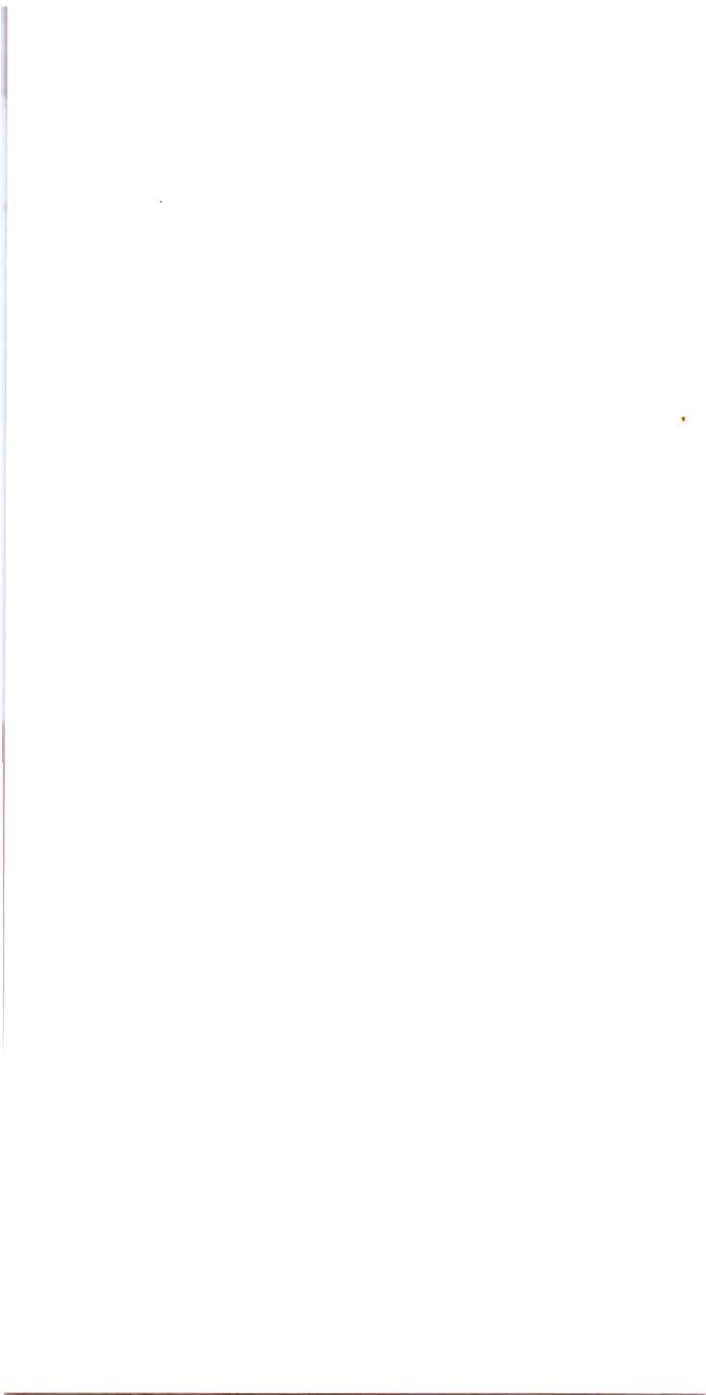
찬송29 성경, 시149:1-9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149:4)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지만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얻을 백성들로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민족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결국에 가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결박하여 무릎을 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모든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며 영광과 존귀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신 주의 백성들이 어찌 그분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 *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늘 기뻐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다 감사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찬양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